

21세기 신해양 시대의 주역, 목포해양대학교

오 정 철
목포해양대 총장



1. 바다에 꿈을 싣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대학으로 도약

1 948년 지역 유지의 뜻을 모아 목포 수산상선학교 창립 결의를 한 이후 1950년 4월에 개교한 본교는 50여 년의 성장 속에서 많은 우수한 해기 인력을 양성하여 무역입국의 산업전사로서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52년 도립 목포상선고등학교로 인가받은 데 이어 1956년 국립 목포해양고등학교로 개칭, 문교부로 이관되었다. 1958년부터 특수학교답게 전교생에게 관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그 해

교가를 제정하고 실습선을 구입하는 등 해기사를 양성하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가속화되고 고급 해기사 양성의 필요에 따라 1964년 해양기술연수원을 개원하였으며, 그 해 대통령령 제 201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면서 항해·기관·통신 등 3개 학과에 5년제 전문학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해기기능 인력양성이 주목적이었다면, 1965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될 때까지는 해기기술 인력양성으로 수출전선에서 커다란 역량을 발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6년 목포시 온금동 신교사로 이전하여 시설면에서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며

1973년 9월에 2년제 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1976년 12월에 바다와 접한 현 죽교동 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그 해 실습선 1척을 인수하였고, 1979년에 2,632톤의 실습선 1척을 구입하여 명실상부한 해기인력 양성대학으로서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습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1979년 목포해양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 3월에 우리 대학의 숙원인 3,288톤 실습선 유달호를 구입하여 외국에 원양항해를 실시하게 되어 세계문물을 직접 체득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5년에 중앙도서관 건립, 1987년과 1988년 2년에 걸쳐 기숙사 3, 4관을 준공하여 학문·연구 지원과 학생의 후생복지에 완벽을 기하는 명실상부한 국립 특수대학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1993년 3월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1995년에는 해사계열과 학문적 상보성을 가진 해양전자 통신공학과, 조선 및 해양공학과를 신설하여 다기능 해기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조선기술 인력과 해양계 전자통신 인력을 양성하는 해양계 특성화 대학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모든 선박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1993년 10월에 최신 자동화 선박인 새유달호(3,514톤)를 건조하여 학생의 실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완공하였고, 1996년 12월에 본관 및 실험실습실을 완공하여 교수 연구실 및 강의실을 확충함으로써 연구와 수업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또한 해난대피 훈련장이 '9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기관공장은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제반 시설사항이 역동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1997년 신학기부터 2개 학과의 대학원이 인가되어 학문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정신히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2. 학부의 특징 및 대학 현황

1) 학부의 특징

우리 대학은 '93년 해사계열 3개 학과 300명의 정원으로 시작된 이후 '95년에 해사공학계열 2개 학과가 신설되었으며, '96년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부제 편제로 전환하였다. 해운산업의 실질적·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사계열은 해상운송시스템 학부 195명, 기관공학부 195명, 해사계열과 상보적 유기성을 가진 해사공학계열은 해양전자·통신공학부 120명, 해양 및 조선공학부 110명 등 총 620명의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새로운 체제 아래 치열한 국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 및 기술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서 제품운송비 등의 물류비용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이러한 물류운송의 거의 90% 이상이 해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주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운송시스템의 발전에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해상운송시스템학부는 선박운항시스템학 전공, 해양안전관리학 전공, 해사정보 전산학 전공, 국제물류시스템학 전공 등 4개의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년간 이수하면 자연스럽게 2개 과정의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근 모든 선박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자동화 관련 전기, 전자, 제어장치 등 종합적

인 플랜트 시스템으로 대형화, 고효율화, 초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박기관의 효율적인 운전, 관리, 정비, 설계, 제작에 종사하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관공학부는 기관공학 전공, 동력기계 전공, 전기제어공학 전공, 운항시스템학 전공 등 4가지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가지 이상의 복수 전공을 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현대의 산업사회는 전자, 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첨단정보화 사회의 각축장이 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자, 통신에 관한 폭넓은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는 해양·전자통신공학부는 해양전자공학 전공, 정보통신공학 전공, 전파공학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9위의 선복량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2대 선사는 세계 5위 선사의 반열에 들 만큼 성장하고 있다. 신해양 시대인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첨단 산업분야를 주도할 해양 및 조선분야 기술인력을 배양하는 해양 및 조선공학부는 조선해양공학 전공, 해양토목 및 항만공학 전공, 해양환경공학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2) 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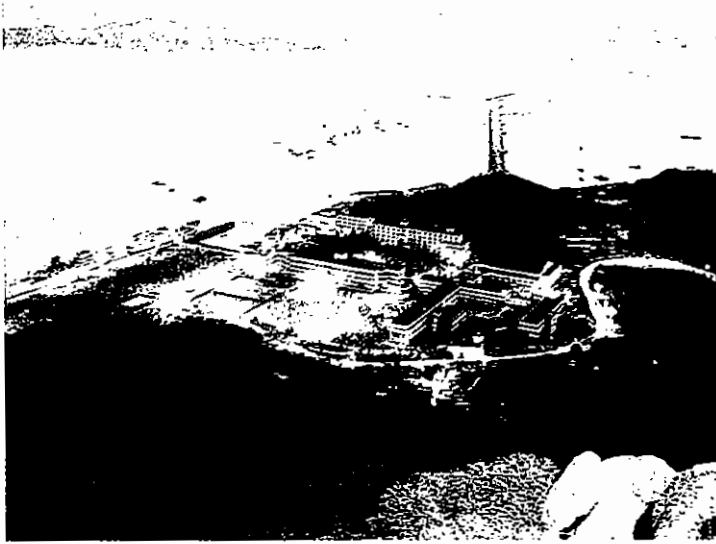
본교의 인적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1월 20일 현재 재적생 수는 남자 1,436명, 여자 209명으로 총 1,645명이이고, 교원은 총장 1명, 전임강사 이상 67명, 조교 16명 등 총 84명으로 교수확보율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은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을 포함하여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졸업생 현황은 고등학교 시

절 1,413명, 고등전문학교 시절 1,024명, 전문학교 시절 1,635명, 전문대학 시절 5,772명으로 총 9,8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4년제 대학생으로서 지난 2월에 289명이 졸업하였다. 이들 첫 졸업생의 취업률은 특수목적 대학답게 100%에 가까운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서 더 요구를 하여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속시설을 살펴보면 중앙도서관은 2,184㎡의 면적에 50,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기숙사인 승선생활관은 최신 시설로서 1, 2, 3, 4호관의 250실에 1,000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습선으로는 125명 정원의 유달호 3,288톤 1척과 '93년에 건조한 최신의 자동화선인 130명 정원의 새유달호(3,514톤)가 완벽한 실습공간과 학습실을 갖추고 있다. 전자계산소는 IBRD 차관, 발전기금, 국고, 기성회 예산 등을 모두 투입하여 '97년부터는 완벽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행정, 학사, 연구, 정보교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대학의 부설 연구소로는 대학생의 내면적인 성장과 미래 지향적인 진로 결정에 폭넓게 대응하여 대학생활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영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통한 학생지도에 일익을 담당하는 학생생활연구소가 있으며, 해운산업에 관련된 학문과 그 응용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산업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사산업기술연구소, 우리나라 서남권역의 해양관광산업, 항만산업 및 환경산업에 관한 학문과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해양산업연구소가 있다.



◀목포해양대는 선박운항 및 해사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해양계 특성화 대학으로서, 신해양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교육의 국제화·개방화·정보화·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다양한 교육으로 인재양성

본교는 전국에 2개밖에 없는 고급상선 해 기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서, 해사계열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전원 기숙사에 입사시켜 숙식 및 피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숙사 생활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승선전의 모든 규칙과 승선의 생활관습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관계로 외국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상 10~15 학점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기숙사 내에 어학수업 시스템을 갖춰 놓아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학실습실(2실×50석)과 음영·음향 도서실(40석)을 수시 개방하여 졸업 때까지는 외국인과의 회화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승선생활에 대한 육체적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수영, 응급처치 및 구급법을 필수로 이수하고 매

일 2km 이상의 아침 구보로 심신을 단련한다.

또한 3학년 1년 동안은 직접 승선실습을 하여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데, 실습기간중 2회에 걸쳐 외국의 항구를 순방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응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해외문물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국제인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된다. 더구나 졸업후 3년 동안 해운분야 기간산업체(특례지정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게 되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에 쌓은 경제적 기반과 경력으로 각종 해사 관련 직업에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다.

승선실습에의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 육상 실험실습실에서는 고가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현장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하며, 각 학부 공히 졸업과 동시에 기술자격증을 수개 이상 취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선주협회회원 선박회사 및 선박관리협회 회원회사와 연계하여 본교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하지 않는 학생은 위탁실습을

하고 있다. 해양 및 조선공학과는 인근에 있는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 배를 설계하는 전공학생들의 감각을 살리기 위하여 1주일간의 승선실습을 교육과정에 필수로 선정,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사계열은 다양한 현장학습과 외국어 교육에 힘쓰며, 국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도덕성 교양,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지식 함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한다. 또한 공학계열은 산학협동체계를 유지하여 졸업 후에는 즉시 취업이 연계되도록 하고자 한다.

국제교류에도 힘을 써 전문분야가 유사한 중국칭도해양대학과 자매결연 및 학생교류조인을 하였으며, 올해는 인도네시아 해양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지의 세계 우수대학과 국제적 교류를 가지고자 한다.

사회교육 과정으로는 '95년과 '96년에는 시민 대상 컴퓨터 무료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97년부터는 TOEIC 강좌 및 영어회화 강좌를 개설하여 효과적인 사회 봉사를 하고자 한다. 차후에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사회교육원을 개설하여 지역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 교육개혁의 열린 교육사회 7개 과제와 대학의 특성화 11개 과제 중 우리 대학에서 취하여야 할 요목을 선별하여 '97년도까지 연구 완료하여 학사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4. 해양계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

우리 대학은 21세기 해양시대에 대비하여 해양 특성화를 지향하는 '교육중심의 해

양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해사계열을 중핵계열로 하고, 이와 학문적 상보성을 갖는 해양공학 계열학부를 개설하여 균형있는 해양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설정 배경으로는 첫째, 치열한 경쟁사회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즉, 경쟁력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운영을 하며, 인근대학과 차별성을 유지하고 해양과 관련하여 체계적 유기적으로 전문가 및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에 있다. 둘째,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철저히 지방대학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셋째, 해양계 교육중심 해기교육에 대한 45년간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학과 운영으로 교육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해사관련 산업체와의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산·학·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서해안 시대에 대형항만 및 해양·조선 산업기지화 지역에 캠퍼스가 위치하여 곧바로 해기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함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화 설정배경을 바탕으로 목포해양대학을 해사계열과 해양공학계열로 발전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해사계열의 중점 육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사분야는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고급 해기인력의 수급이 증대함에 따라 인재양성이 시급한 때이다. 해사업무는 특성상 국제성 및 복합성을 띠고 있어 전문성있고 다원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해기분야의 경우 국제기준을 만족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해양공학계열의 상보적 체제 유지이다. 해사계열과 학문적 상보성을 가진 해양공학계열은 항구, 항만, 조선공업단지가 인

근에 있어 교육의 수단을 강구하기가 수월하며 복잡한 해상교통로, 해양환경문제, 미개발 서남해안 도서지역과 해양관광산업, 입해도시문제 등 독특한 연구분야가 많아 해양공학계열의 발전성은 무한하다.

이러한 특성화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첫째는 교육의 국제화 및 개방화이다. 외국과의 공동연구자원을 확대하고, 국제관계 전문요원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목 증설을 추진하며, 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국제 이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적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 및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학점 인정제를 시행하는 등 국내·외 대학간 협력을 강화하고, 본교의 특성상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현대 정보사회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교육의 정보화 대책 수립이다. 경쟁력 있는 교육 및 연구환경을 구현하고 이미 정보시대가 되어버린 산업사회에 적절한 고급인력을 공급하며, 대학행정업무의 신속 정확성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 및 지역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연구 및 실험실습 전산화 사업을 수립, 제9차·11차 IBRD차관, 일반회계 기성회, 발전기금 등을 투입하여 2000년까지 Intelligent Campus가 실현되어 1인 1터미널, 분산서버 1클라이언트 구조, 멀티미디어 환경, 유선 및 무선 액세스, on-stop/non-stop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국제경영시대가 요구하는 고급화,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실용성이다. 졸업전에 각 기업체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3C(Conversation, Computer, Certificate) 기본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사회적 인정 및 개인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실용성 교육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현장실습과 인턴사원 확정제 도입, 산업체와의 교과서 공동개발,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인성교육을 중시하고자 한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이다. 상기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시설, 학생 및 후생복지, 연구, 행정서비스 등 교육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소 적은 캠퍼스 면적은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2000년대까지는 국제수준의 해양관련 교육시설이 조성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우수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장학금 등의 재정적 지원으로 면학풍토를 개선하고자 한다. 대학문화 창달 및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쾌적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1세기 교육 개방화와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며, 대학의 본래 책무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체제인 행정조직의 다변화를 꾀하여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대학행정 지원체제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해양계 특성화 대학으로서 도약을 기대하는 바이다. ■